

## 한경·한일재단 기획 '일본 퇴직기술자 유치'

## “日기술자 덕에 실패했던 부품개발 성공”

지난 1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태하의 한기용 사장은 액체정량 공급장치를 국산화(제품명 프로펄프)하는 데 성공했다. 액체정량 공급장치는 반도체, 발광다이오드(LED), 액정표시장치(LCD), 자동차, 섬유, 화장품 등 다양한 생산 공정에서 물이나 점착제, 화학성분 등 액체 재료를 정량으로 뿌려주는 장치다.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 생산해 온 이 회사는 최근 수년간 장비 국산화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액체정량 공급장치를 자체 생산하기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독일의 비스코텍(viscotec)과 일본의 헤이신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장비를 만들기 어려웠던 이유는 정교함 때문이었다. 0.1mg의 오차도 없이 극소량의 액체를 빠른 속도로 뿌리려면 장비에 들어가는 특수고무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고무는 kg당 700만원이 넘는 고급 재료로만 제작된다. 이 특수고무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통해 특수고무 사출 전문가인 일본의 니시자와 도시미치 기술고문(60)을 영입했다. 니시자와는 세계적 타이어 전문 기업인 브리지스톤에서 30년 동안 특수고무를 연구해 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특수고무 사출성형기를 만들었다.

태하가 만든 장비는 가격이 외국 제품의 절반이면서 내구성이나 성능은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일본의 디스펜서 전문기업 소세이와 1억4000만원 가량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그동안 비스코텍, 헤이신이 만든 제품을 사용해 왔던 국내 대기업들도 프로펄프를 찾기 시



니시자와 도시미치 태하 기술고문(왼쪽 두 번째)이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본사 3층 기술연구소에서 액체정량 공급장치에 쓰이는 스테이터용 특수 고무 사출성형기 작동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남양주=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 액체자동분사기 제조사 태하 제품 국산화로 매출 신장 한일재단, 186곳에 기술자 연결

작했다. 한 사장은 “프로펄프 개발로 지난해(100억원)보다 매출이 30% 이상 늘 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에 일본 퇴직 기술자를 활용하는 한일 협력 모델이 최근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한국경제신문이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일본 퇴직기술자유치사업’은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일본 단카이세대 퇴역 기술자를 중소기업의 기술고문으로 활용해 설계부터 제

### 단카이세대

일본에서 2차세계대전 패전 직후인 1947~1949년에 태어난 약 80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다. 단카이(團塊)는 ‘덩어리’란 뜻으로, 이들이 대량생산형 조직사회에 순응하면서 동세대끼리 잘 뭉친다는 데서 유래했다.

품 개발까지 전 과정을 지도받는 사업이다. 재단은 5년 동안 396명에 달하는 일본 퇴직 기술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국내 중소기업과 연결했고 일본 기술자의 자문료, 체재비, 항공료, 통역료 등 관련 비용의 40~50%도 지원하고 있다.

니시자와 고문과 같은 일본 퇴직 기술

자들은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자체 R&D로 풀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는 도우미로 활약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일본 기술자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186곳에 달한다. 재단이 5년간 40억원을 투입해 일본 퇴직자 유치에 나선 결과 97개 중소기업이 △수출 증대 △수입 대체 △비용 절감 등으로 2375억원의 재무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투입예산 대비 60배에 달하는 성과다.

김택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기술지원팀장은 “한국 중소기업은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소재 분야 전문 기술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일본 기술자들도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만들 수 있어 양국 모두에 윈윈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 “엔저로 인건비 부담 줄어… 日 퇴직인력 유치 기회”

##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정부가 일본에 있는 부품소재 분야 퇴직 기술자를 서둘러 더 많이 유치해야 합니다.”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68·사진) 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는 28일 서울 논현동 재단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예전보다 싼 인건비로 일본 퇴직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한

이 부회장은 “엔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일본에서 향후 자국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더 많은 일본 퇴직 기술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 부회장은 한 국외국어대에서 26년간 국제통상을 가르친 통상 전문가로 2011년 재단에 합류한 뒤 한·일 기업 간 기술협력 사업을 이

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가 살아날수록 이후 기술인력을 외국에 내보내기보다 자국 경제활동에 재투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일본은 전·현직 기술자 단체인 일본기술사회가 기술자들의 해외 취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의 부품 수출이 늘어나면서 기술인 유출 문제에 대해 민감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부품소재 분야가 빨리 성장해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이 일본 인력을 적극 유치해 양국 간 기술 격차를 줄여 수평적 분업체계를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일본 기술자 연결사업 외에 용접, 열처리 분야 등에서 일본 기술자로 하여금 국내 중소기업 기술자들을 모아 진행하는 기술지도사업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그는 “국내 기술자들을 일본 기업현장에 연수 보내거나 재일교포 기술자들을 국내기업 연구개발에 참여시키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